

날짜 2022-11-06(D1)      본문 사30:26, HH.116-125  
번호 2332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성찬      찬송 찬6, '목소리 높여서'

###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

시작 주기도  
찬송 찬6, '목소리 높여서', 찬7, '성부 성자 성령'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사30:26, HH.116-125  
성찬 마26:26-28, 찬230,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찬송 찬57, '오늘 주신 말씀에'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 ① 성찬 오늘은 11월 첫 주, 성찬 있습니다.
- ② 지방회 탈회 이번 주 10일(목) 오전 11시, 새대전 지방회 월례회에서 우리 한결같은교회의 정식 탈회가 있겠습니다.

헌금기도, 축도

<sup>10</sup>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sup>11</sup>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30:26)를 참조 본문으로, ‘천국과 지옥’ 책 글 번호 116번에서 125번 글, 제목은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였습니다.

지상의 해와 달은 상응을 통해 천국에도 해와 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며, 지상의 해를 통해 지상 만물이 열과 빛을 받듯 천국 역시 천국의 해를 통해 천국의 열과 빛을 받는다는 사실, 천국의 해는 주님이시며, 천국 해의 열은 신적 선, 천국 빛은 그 선에서 나오는 신적 진리라는 사실, 이 둘은 신적 사랑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주님은 천국의 해이지만 해 자체가 아니라 해를 옷처럼 입으신 상태시라는 사실, 주님은 천국보다 크셔서 천국 안에 계시지 않고, 천국을 벗어나 계신다는 사실, 주님 사랑의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해로, 이웃 사랑의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달로 보이시며, 이는 또한 오른눈, 왼눈이 보는 것과 상응하고, 이는 또 사랑과 신앙하고도 상응한다는 사실, 즉 사랑, 선, 해, 오른눈이 천적, 신앙, 진리, 달, 왼눈이 영적이라는 사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역량 만큼만 보이시며 나타나시는데, 안 그러면 그들에게 화(禍)가 닥치기 때문이라는 사실, 지옥에 있는 영들이 해이신 주님을 보면 오히려 짙은 흑암으로 보이며, 이는 그대로 천국 천사들이 지상 해를 볼 때도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 주님은 천국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그래서 천국은 물론, 지상 만물을 늘 붙드시며, 돌보신다는 사실 등을 배웠습니다.

오, 주님, 제가 이 모든 사실을 기억, 해바라기처럼 늘 주님을 바라며,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